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후서-
다니엘 12:1-4, 데살로니가후서 2:1-2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모든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중,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수준, 표준대로 살아가서 흑암을 꺾고, 남은 자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해답과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신앙의 발판 10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앙의 발판 10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점을 치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시작, 결론, 방법,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발판은 성령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네 번째 발판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 권이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발판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열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이 전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 생명을 살리고 영접하게 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있다.

본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

인 건강한 믿음이며, 정상적인 믿음이다. 강단 메시지를 조금씩 붙잡게 되면 내가 깨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직장, 가정에서 성공하게 된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도 마지막 성도의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 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고, 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강단메시지이고 순종하고 복중해야 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낸 후 약 1년 안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데살로니가교회에게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보낸 후 또 다시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낸 이유는, 대표적으로 2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낸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경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교회들이 그러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겨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데도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거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잘못 왜곡된 것이다. 우리도 나 중심으로 성경말씀을 듣게 되면 왜곡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정상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틀렸거나, 보완할 이유가 있거나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좀 이상한 것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를 넘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도캠프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1. 첫 번째로는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이비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데살로니가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신앙에 빠져 있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1 절에서 2 절 말씀을 보겠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데살로니가후서 3 장 6 절에서 8 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페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3) 세 번째로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등의 체험을 복음보다 더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이단사이비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9 절에서 10 절 말씀을 보겠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복음중심, 그리스도중심, 말씀중심이 되어야 한다.

(4)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11 절에서 12 절 말씀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하게도 잘못된 이단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와 거짓과 강요’는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2. 두 번째에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 대부분은 정상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1) 첫째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3 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2)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교회는 지속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 장 4 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냥 박해가 아니라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세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 장 11 절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현장, 가문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살리지 못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다.

(4) 네 번째로, 정상적인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따르는 성도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15 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주의의 전통과 장로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오직예수, 오직복음, 오직전도, 오직선교이다.

(5) 정상적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함께’의 믿음이다. 함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가장 정상적으로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윈니스이다. 위드와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 진정한 윈니스를 이룰 수 있다. 이분들이 탐을 이루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3 장 3 절 말씀을 보겠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아무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6) 다음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자신의 일, 공부 등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3 장 10 절에서 12 절의 말씀을 보겠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7) 또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후서 3 장 13 절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이라고 어려움이 없지 않다. 복음으로 끝난 남은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70 인 제자이고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 여정이 300, 30, 3, 70 현장의 여정이다.

(8) 마지막으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때마다 일마다” 주심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 장 16 절 말씀을 보겠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나의 고백처럼 구원의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결론으로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단 한 가지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가장 정상적인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직 복음으로 끝낸 남은 자가 되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는 정상적이지 못한 나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적어보기를 바란다. 인정만 해도 옛틀이 새 틀로 변해 갈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위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세월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표를 다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저희에게 더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도약하여 3천 제자, 1천만 제자를 세우는 그 소중한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